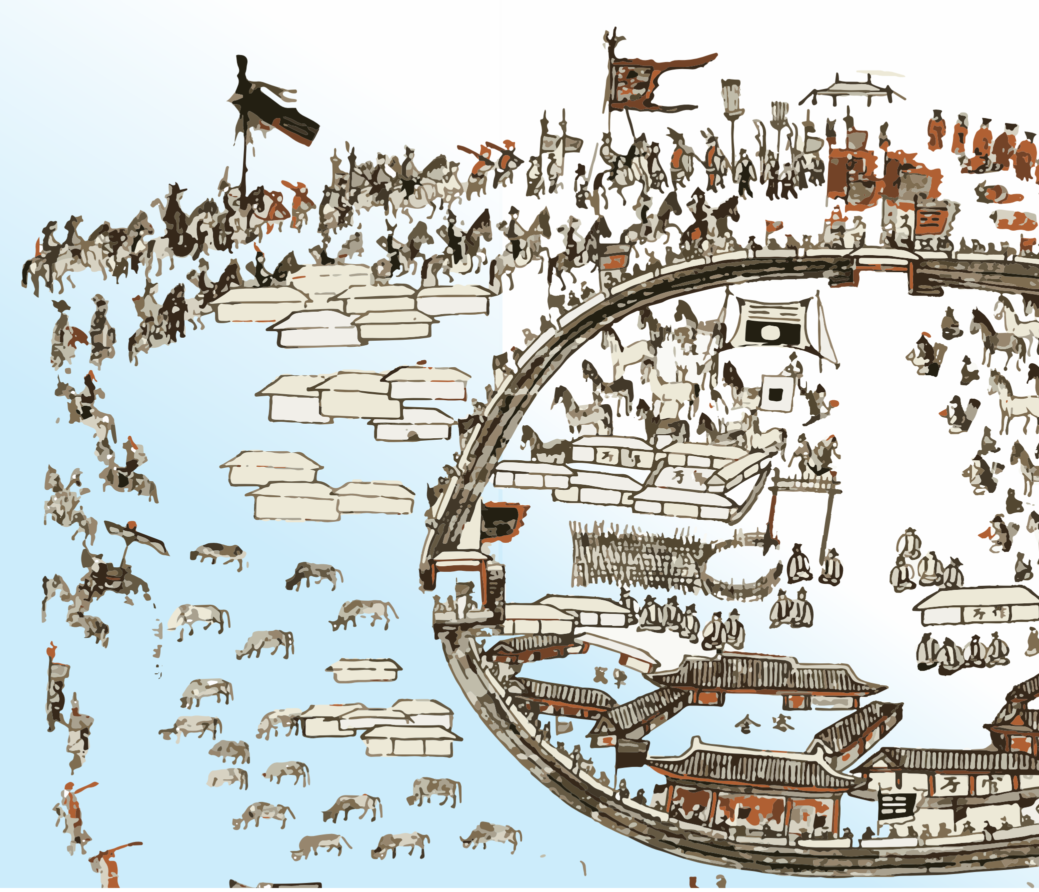
민속자연사박물관

보물섬 제주 살살이 훑어보기 '대정현성'



대정현성

대정현성은 1416년(태종 16년)에 제주의 행정구역 정비로 대정현이 설치되고 나서, 2년 뒤에 대정현감 유신이 적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처음에는 동·서·남·북 각각에 문이 있고 문 위에는 초가지붕으로 된 망루가 있었다. 현재 북문은 없는데 17세기 쯤에 폐쇄된 것으로 본다. 여러 문헌을 볼 때 처음에 쌓았던 성을 점차 확장하며 고쳐 쌓았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규모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선조 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성은 현재 대부분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동헌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객사, 향청, 장청, 향교, 창고 등은 문헌에만 존재할 뿐 흔적조차 희미해져가고 있다.

성문과 돌하르방

대정현 성문 밖에서 수문장 역할을 한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모두 12기이다. 대정현의 돌하르방은 제주목 돌하르방에 비해 평면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정의현 돌하르방보다는 곡선적이고 소탈한 모습을 보인다. 동·서·남문 밖에 각각 네 기씩 세워졌던 돌하르방은 길을 넓힌다든지 하는 이유로 대부분 원래 위치에서 흩어져 있다가, 본래의 위치로 옮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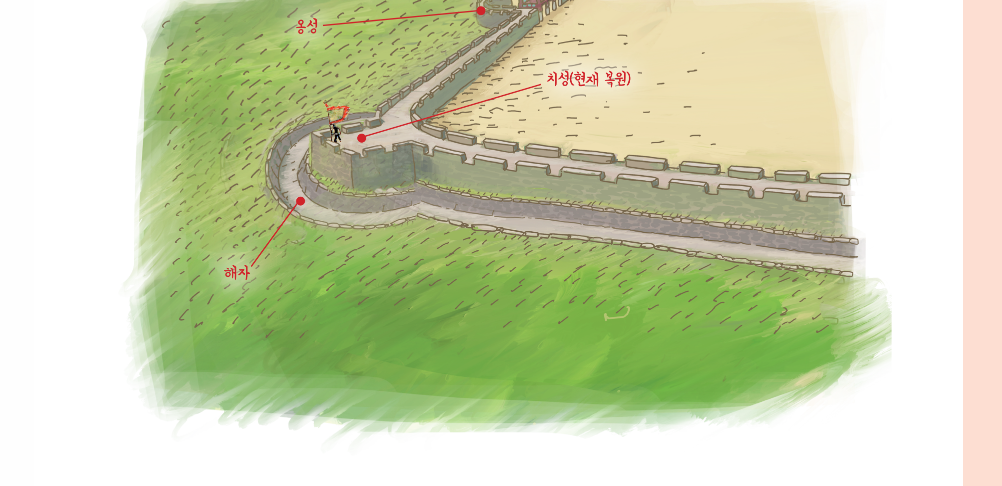
남문 성벽과 문루 추정도

현재의 남문 주변의 돌하르방

성과 방어시설

대정현성은 성문마다 문루와 옹성을 만들고 네 귀퉁이에 치성을 쌓아 방어에 용이하게 하였다. 치성과 옹성은 성벽을 오르는 적을 공격하기에 유리한 시설로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따르면 "옹성과 치성이 없으면 오는 화살과 돌을 가려 막더라도 적군이 성 밑에 와서 붙으면 이를 보고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쓰여 있다.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북쪽에 위치한 대정현성 위에서 보면 적의 공격 시 이를 막기 위해 파놓았을 것으로 보이는 해자의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

대정현 서남지역의 (치성)과 (해자), (옹성) 추정도



1 동문 - 돌하르방

2 3 4 추사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송계순 집

추사 김정희와 관련한 유적으로, 송계순 집은 김정희가 유배 와서 처음 머물렀던 곳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 2년 후 김정희는 강도순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현재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사적 제487호)가 그 곳이다. 추사관은 조선 후기 대학자이자 예술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삶과 학문, 예술세계를 기리기 위해 《세한도》에 그려진 집 그림을 모델로 건립한 공간이다.

※ 추사 김정희(1786년~1856년) : 본관은 경주, 호는 추사·완당이며 조선의 실학과 청의 학풍을 융화시켜 경학·금석학·불교학 등에 걸친 학문 체계를 수립했으며 서예에도 능해 추사체를 완성하였다. 작품 중에는 국보 제180호로 지정된 《세한도》와 《모질도》, 《부작란도》 등이 있으며, 문집으로는 《완당척독》, 《담연재시고》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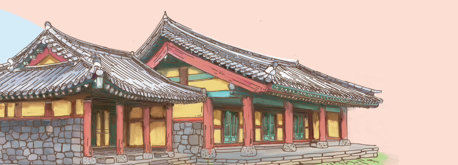
5 정온 유배지, 동계 정온 유허비

정온 유배지는 동계 정온이 1614년부터 9년 간 유배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곳(대정현 동성리~현 안성리-막은골 1688번지)이다. 200여 년 후 제주목사 이원조는 정온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유허비를 세웠고, 그의 유배지 자리에는 사당인 송죽사(동계사라고도 함)를 세웠다. 현재 송죽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유허비는 보성초등학교 입구로 옮겨졌다.

※ 동계 정온(1569년~1641년) : 대사간, 대제학,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고, 숙종 때 절의를 높이 평가하여 영의정 품계를 받았다. 대정 유배시절 도민들에게 해박한 지식을 전달한 공이 인정되어 제주 오현으로 추앙받고 있다. 저서로는 《덕변록》 등이 있다.

6 향교

향교란 공자를 비롯한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며, 지방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세운 국립교육기관을 말한다. 대정현성 안에 위치했던 대정향교의 정확한 위치나 건립연대는 알 수가 없다. 1418년(태종 18년) 또는 1420년(세종 2년)에 현성 북쪽에 향교가 처음 세워졌으나 후에 성 동문으로 옮겼다가 다시 서문으로 옮겼다는 기록만 존재한다. 대정향교는 1653년(효종 4년) 현재의 위치(서귀포시 안덕면 향교로 165-17)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7 객사

임금님의 명을 받고 내려온 관원의 숙소이다. 한 달에 두 번(초하루, 보름), 임금에 대한 예를 올렸던 곳이기도 하다. 《탐라순력도》 대정양노에 보면 이형상 목사가 객사에서 양로연을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 객사 건물은 1908년부터 1931년까지 교육 공간(사립 한일학교~대정초등학교 전신)으로 활용되다가 1932년 무릉 1리와 2리로 옮겨져 마을의 공무를 보던 향사로 사용되었다. 현재 그 터에는 기와조각만 밭담을 끼고 널려있다.

14 보성초등학교

1935년 설립된 대동서당이 그 시초이다. 1937년 대정 사설학술강습소로 개칭하였다. 1940년 사립 보성심상소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같은 해 7월, 개교하였다. 그 후 1950년 보성국민학교로 개칭하고 1956년 현재 위치로 옮겨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5년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보성초등학교로 명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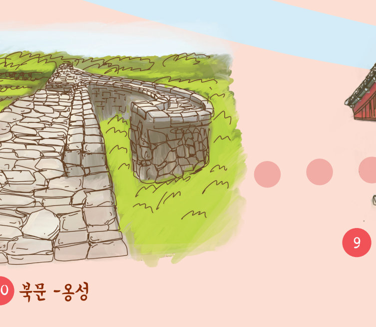
13 서문 - 돌하르방

12 창고

대정현성의 창고는 사창·보민창·별진고·공서오 등의 이름으로 기록에 남아있다. 《탐라순력도》를 비롯한 여러 옛 지도를 통해 창고의 위치와 명칭이 자주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11 별과원

별과원은 조선시대에 임금에게 진상할 과실을 보내기 위해 운영했던 과수원이다. 동헌의 동쪽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1653년)에는 유자 54그루, 청귤 1그루, 새로 심은 과수 20그루, 감나무 7그루, 매화 5그루, 치자나무 1그루 등 88그루의 과일 나무가 심어져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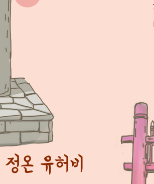
10 북문 - 옹성

9 동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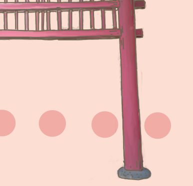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정무가 행해지던 중심 건물로 1416년(태종 16년) 제주를 삼읍(三邑)으로 통치하면서 세워졌다. 지방의 일반 행정업무와 재판 등이 여기서 행해졌다. '처음 동헌은 객사 서(西)에 있었는데 1575년(선조 8년) 낙뢰로 파손되었으므로 조금 남(南)으로 이건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보성리 1713번지 일대에 설치되었다가 16세기 이후에 옮겨 다시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위치는 현 보성초등학교 위치로, 1930년대 면사무소 이전과 함께 철거되었다.

8 군기고

병기 등 군수품을 보관하고 수리하던 곳이다. 이원진의 《탐라지》(1653년)에 따르면 당시 대정현성 내 병력은 파총 1명, 성장 2명, 초관 7명, 군관 72명, 기병 204명, 보병 101명, 수군 375명, 차비군 11명, 속오군 555명 등 모두 1,477명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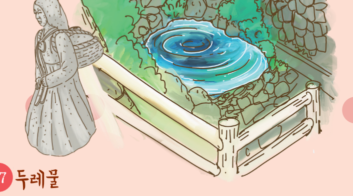


15 동계 정온 유허비



16 홍살문

홍살문은 과거 궁전, 능묘, 관아 등의 진입로에 세우던 붉은 색을 칠한 나무문을 일컫는다. 홍살문은 출입의 기능보다는 상징성이 더 중요시된 문이다. 홍살문이 설치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탐라순력도》의 대정조점, 대정배전, 대정양노, 대정강사 등의 그림 중앙에 뚜렷이 그려져 있다. 일제 강점기에 모슬포로 면사무소를 옮길 때 다른 건물들과 함께 철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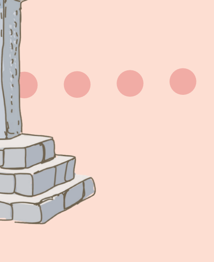
17 두레물

두레박으로 떠올리는 물이라고 해서 '두레물'이라 한다. '거수정'이라고도 부른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대정골에 명관이 오면 물이 말랐다가도 솟아오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이가 오면 솟아오르던 물이라도 금세 말라버렸다고 한다.

18 향청

향청은 조선 시대, 지방 군현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이다. 백성을 대표하여 그 우두머리인 좌수와 그 다음 자리인 별감은 그 지방 양반 가운데서 덕망이 있는 사람이 맡았다.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

19 남문 - 돌하르방



20 동문 - 삼의사비

'이재수 난'의 세 장두인 강우백·이재수·오대현을 기려 대정고을연합회의 주체로 1997년 세운 비이다. 이재수 난의 원인과 경과, 결과가 자세히 쓰여 있다. 삼의사비를 통해 구한말 제주도민의 생활상과 우리나라를 둘러싼 당시 국제정세 등을 가늠해볼 수 있다.

※ 이재수(1877년~1901년) : 이시준과 송씨 부인 사이의 둘째 아들로, 어려서부터 칼과 활등 무예에 뛰어났다고 한다. 1901년 5월 주민과 천주교도의 충돌로 민란(이재수 난)이 일어나자 민군(民軍)의 우두머리가 되어 난을 이끌었다.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21 안성기록사랑마을회관

안성리는 1780년에서 1922년까지 끊어짐 없이 호적중초와 절목을 보존·관리해왔고, 마을의 역사·문화에 대한 기록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2010년에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었다. 마을회관 2층 전시실을 통해 중요 마을 기록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대정읍지편찬위원회, 『대정읍지 I』, 2014
- 대정읍지편찬위원회, 『대정읍지 II』, 2014
- 대정읍지편찬위원회, 『대정읍지 III』, 2014
- 서귀포시, 『대정성 종합정비계획』, 2012
- 오성찬, 『제주의 마을 시리즈⑧ 대정고을』, 2002
-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의 옛 지도』, 1996
-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순력도』, 2008

보물섬 대정현성

동샛ㅂ름길 따라, 뚜벅뚜벅

동샛ᄇᆞ름길 따라, 뚜벅뚜벅

보물섬 대정현성

오늘은 '보물섬 제주 샅샅이 훑어보기-제주읍성' 에 이은 두 번째 시간으로, 대정현성을 둘러볼거야.
혹시 너희들 "대정몽생이" 라고 들어봤니? 몽생이는 망아지를 뜻하는 제주도 말이야. 흔히 대정 사람들을 "대정몽생이" 라고 하는데 이는 아주 요망지고 무엇이든 똑 부러지게 한다는 뜻이야. 대정몽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정사람들이 억척스럽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니?
지도를 보면 알거야. 대정은 한반도 끝 제주에서 다시 그 끝, 태평양의 거친 바람을 온 몸으로 맞아야 하는 곳이지. 산등반도와 마주하고 있어서 사시사철 바람이 거칠게 불고, 동쪽으로는 산방산과 단산이 골을 이루어 앉아, 그 사이로 거센 회오리바람이 휘몰아 치지. 사람이 다니는 길보다 바람이 다니는 길이 더 많은 곳이기도 해. *도깽이 주제, 늦ᄇᆞ름, 동샛ᄇᆞ름, 바른 하늬 ……. 그래서 다른 마을보다 바람 이름도 많아.
거친 바닷바람을 맞는 만큼 땅도 척박하고 거칠어.

자연환경만 척박한 것이 아니야. 왜구의 침입도 잦았어. 조선 시대는 물론이고, 일제 강점기에도 많은 일본군 진지들이 대정에 만들어졌어. 농사짓기에도 부족한 일손인데 이런 일들에까지 일손을 뺏겨야 했으니 사람들은 더 요망져야 했어. 더 부지런해야 했어.

대정은 이런 척박한 자연환경 때문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의 유배지로 안성맞춤이었지. 제주읍에서 한라산 서남쪽을 빙 돌아야 도착하는 이곳에 왔다는 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어. 그래서 대정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야.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땅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정현성이 지어졌단다.

지금부터 대정마을 할아버지와 함께 둘러볼까!

*대정 바람 이름
샛ᄇᆞ름-동풍 / 마ᄇᆞ름-남풍 / 서갈ᄇᆞ름-서풍 / 하늬ᄇᆞ름-북풍 / 바른하늬ᄇᆞ름-직통 불어오는 북풍 / 높새ᄇᆞ름-한라산으로부터 불어오는 동풍 / 동샛ᄇᆞ름-산방산으로부터 불어오는 동풍 / 늦ᄇᆞ름-마라도 쪽에서 불어오는 남풍 / 도깽이주제-회오리바람 / 놀-태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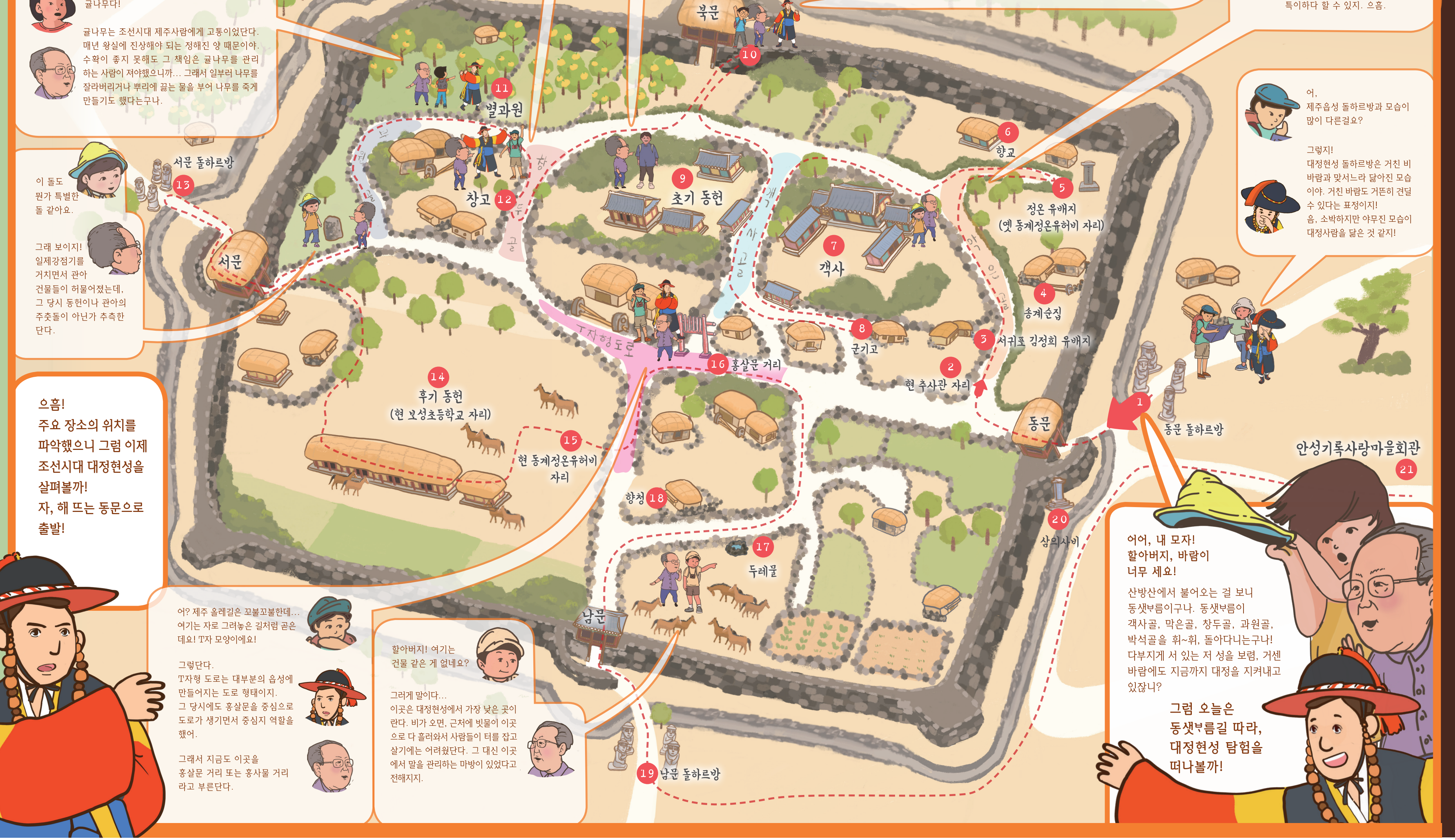
2019년 대정현성 지도

지도 가운데를 보면 T자형 도로가 보이지?
그 중심을 홍살문 거리라고 한단다.
그 홍살문 거리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추사관, 서쪽에는 보성초등학교가 있어. 동, 서, 남쪽 문이 있던 세 곳에는 대정현 돌하르방이 서 있는 것도 보일거야.
이 남쪽엔 옛날부터 있던 두레물도 보이구나!

동샛ᄇᆞ름길 1.동문 돌하르방 → 2.추사관 → 3.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 4.송계순집 → 5.정온 유배지 → 6.향교 → 7.객사 → 8.군기고 → 9.동헌 → 10.북문 → 11.별과원 → 12.창고 → 13.서문 돌하르방 → 14.보성초등학교 → 15.동계정온유허비 → 16.홍살문 거리 → 17.두레물 → 18.향청 → 19.남문 돌하르방 → 20.삼의사비 → 21.안성기록사랑마을회관

조선시대 대정현성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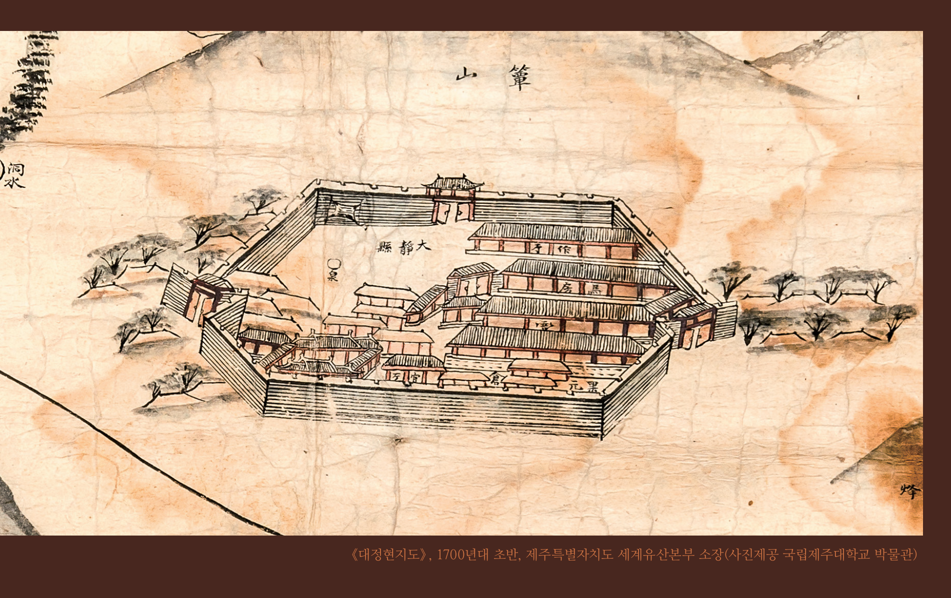
※ 15~20세기 대정현성의 모습을 재현한 그림 지도



옛 지도로 보는 '대정현성'

대정현성에 대한 옛 지도로는 《탐라순력도》(1702년), 《대정현지도》(1700년대 초반), 《제주삼현도》(1750년 경), 《호남전도》(1700년대), 《대정군지도》(1872년), 《대정군지도》(1899년)가 있다. 18~19세기 대정현성과 성안 주요 건물의 위치·형태뿐만 아니라 성 밖에 형성된 마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18세기까지는 북쪽을 아래로, 남쪽을 위로 그렸으나 19세기부터는 오늘날의 방위에 맞게 그려졌다. 특히 《탐라순력도》를 통해서는 대정현성 내에서 이루어진 군사훈련 등 다양한 행사 장면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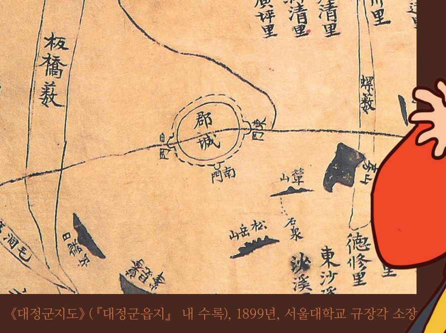
《탐라순력도》 대정조점, 1702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소장(사진제공 국립제주대학교 박물관)


《대정현지도》, 1700년대 초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소장(사진제공 국립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삼현도》(《해동지도》 내 수록), 1750년 경,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호남전도》, 1700년대,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대정군지도》, 187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대정군지도》(『대정군읍지』 내 수록), 1899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